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 소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¹⁾

- 치유적 관점으로 -

박유미**

(e-mail : sabinaz@hanmail.net)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가족, 연인, 그리고 개인 |
| 2. '삶'을 그리기 위한 '죽음' | 4. 나가며 |

키워드 : 山田詠美(Yamada Eimi, Amy Yamada), 災害文学(The Disaster Literature), 癒し(Healing), 家族(Family), 喪失(Loss), 再生(Regeneration)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작가의 한 사람인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의 소설을 죽음과 상실로부터의 '치유'라는 관점으로 분석, '치유문학'으로서 재조명하는 데 있다.

야마다 에이미는 흔히 에쿠니 가오리(江国香織), 요시모토 바나나(吉本ばなな)와 더불어 일본 3대 여성작가로 불리며 아쿠타가와(芥川) 상 등의 선고위원을 맡을 정도로 일본문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 역시 높은 편으로 이를 반영하듯 그녀에 대해 “논하는 문헌은 매년 습관처럼 나오고 있을”¹⁾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연구에 있어서는, 그녀

* 이 논문은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7699)

** 충남대학교 강사. 근현대일본문학 전공

1) 有田和臣(2005) 「研究動向 山田詠美」 『昭和文学研究』 51卷 昭和文学会編集委員会 p.95.

가 차지하고 있는 일본문단에서의 위치가 무색할 정도로 “연구논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작품론은 더욱 미미한 상황”²⁾이다. 이는 데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녀에 대한 평가가 과감한 성적 표현을 담은 연애 소설의 여왕이라는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는 데 기인한 바 크다.

야마다 에이미는 1985년, 클럽 가수인 일본여성과 미군기지에서 촬영한 흑인병사와의 연애를 그린 『베드 타임 아이즈(ベッドタイムアイズ)』(1985, 河出書房新社)로 문예상(文芸賞)을 수상하고, 같은 해 이 작품이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 오르며 화려하게 등장하였다. 그런데 소설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자 “이 소설이 화제가 된 것은 줄거리가 아니라 섹스 묘사 때문이다”(『주간 아사히(週刊朝日)』 1985년 11월 15일)라든지 “이소설의 본령은 그 압도적인 섹스 묘사를 통해, 쾌락의 실감을 거침없이 그려낸 박력에 있다”(『주간 신초(週刊新潮)』 1986년 1월 23일) 등 작품에 그려진 성적 묘사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으며,³⁾ 이러한 화제성으로 인해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가 흔들렸다.⁴⁾

작가 역시 “자주 섹스를 쓴다고들 하나 진짜 쓰고 싶은 것은 섹스가 아니”라 “섹스를 계기로 생겨나는 것”⁵⁾이라고 하며 자신의 작품이 편견에 의해 곡해되어 왔음을 토로한다. 야마다 에이미의 작품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신체적 감각’을 빌려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를 묘사하는 그녀만의 독특한 표현법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앞의 글 1) 有田和臣(2005), p.95.

3) 이처럼 노골적인 섹스 묘사가 빈번히 그려지고 있다는 점 외에도 연애의 상대가 이질적인 흑인남성이라는 사실이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며, 남녀의 연애가 정신적 차원이 아니라 육체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매스컴의 굵지 않은 시선을 불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대담한 소설을 쓴 작가가 20대 중반의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흑인과 교제하고 있던 작가 자신의 실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가 흔들렸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인 비디오에 출연한 경험과 누드 모델, 호스티스, SM 클럽에서 일한 경력 등이 폭로되면서 야마다 에이미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작가’라는 오명과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4) 이러한 편견 속에서 야마다 에이미는 1987년에 『소울·뮤직·러버즈·온리(ソウル・ミュージック・ラバーズ・オンリー)』(1987, 角川書店)로 나오키(直木) 상을 수상하고 1989년에는 『풍장의 교실(風葬の教室)』(1988, 河出書房新社)로 히라바야시타이코(平林たい子)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선평에서 오쿠노 다케오(奥野健男)는 “『베드 타임 아이즈』 이래 그 대담한 생활방식, 성적 묘사에 나도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았는지 모른다”고 하며 야마다 에이미의 작품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인정하는 한편 “이런 뛰어난 작가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었나 하는 느낌이 강하다”(奥野健男(1989) 『群像』講談社, p.276.)고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5) 山田詠美·吉本バナナ(1992) 「恋愛小説のゆくえ」 『文芸』 31(5) 河出書房新, p.162.

가와무라 미나토(川村 湊)는 이에 대해 “지금껏 정신적인 것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육체적 언어로 번역”⁶⁾을 시도한다고 평하고 있다. 즉, ‘마음’ ‘사랑’ ‘증오’ ‘자유’ 등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범주에 속하는 감정들을 ‘피부’ ‘손’ ‘등뼈’ ‘발’ 등 ‘신체의 일부’를 빌려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모호한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그려내기 위해 신체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 표현하는 방법을 구사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접촉을 그리는 것은 그 접촉에 의해 느껴지기 시작하는 ‘마음’을 담고 싶기 때문이며, 이러한 표현법이 작가적 특징으로 이해되면서 작품을 대하는 시선 역시 달라지기 시작한다.⁷⁾ 그리고 야마다 에이미가 데뷔 이래 줄곧 ‘인간’과 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받게 된다.⁸⁾

6) 川村 湊(1987) 「解説」 『ジェシーの背骨』 河出文庫, p.184.

7) 야마다 에이미의 이러한 표현적 특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평가와 논의는 작품 해석에 있어 가장 안정적인 틀로 고착화되어 이후의 연구에서도 방향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로 자리 잡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竹田清嗣(1986) 「山田詠美論一近目の目」 『文芸』 25(5) 河出書房新

富岡 幸一郎(1987) 「解説」 『蝶々の纏足』 河出文庫

川村湊(1987) 「解説」 『ジェシー背骨』 河出文庫

田中実(1991) 「フェティシズムの誕生—「風葬の教室」」 『国文学：解釈と鑑賞』 56(8) 至文堂

池沢夏樹(1992) 「倫理と人工言語—山田詠美試論」 『文学界』 46(2) 文芸春秋

志村 有紀子(1997) 「山田詠美の少女像—「放課後の音符」「風葬の教室」「蝶々の纏足」をめぐって—

『学芸国語教育研究』 15巻 東京学芸大学国語科教育学研究室

島本理生(2005) 「身体と文学をつなぐ世界」 『文芸』 44(3) 河出書房新社

이러한 표현 방법이 야마다 에이미의 작품이 지닌 뛰어난 특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많은 연구가 이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감각적 신체 묘사를 통해 연애를 그리는 데 탁월한 작가라는 이미지가 현재까지도 야마다 에이미를 구속하고 있어, 새롭고 참신한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 야마다 에이미는 “교육적·학교적인 작가”(齋藤 美奈子(2005) 「評論 学校の文化と『ほく勉』」 『文芸』 44(3) 河出書房新社 p.104.)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접하게 되는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나비의 전족(蝶々の纏足)』, 『풍장의 교실(風葬の教室)』, 『방과 후의 음표(放課後の音符)』, 『나는 공부를 못 해(ぼくは勉強ができない)』 등 야마다 에이미의 작품 중에는 학교를 무대로 성장해 가는 ‘소녀·소년물’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은 여타의 학원물과는 달리 교과서의 내용으로는 부적합한 표현과 내용이 담겨있다. 그렇기에 교과서 게재를 위해서는 적합한 내용만을 부분 발췌하고 일부 단어의 수정과 삭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꾸준히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녀의 작품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1990년을 전후로 그녀의 소설이 일본의 국어교과서에 실리는 문제와 이미 실린 작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눈에 띄기 시작하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高田桂子(1989) 「少女たちはどこへ行くのか—山田詠美を読んで」 『日本児童文学』 35(11) 日本児童文

본고에서는 야마다 에이미의 작품이 다양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작가가 인간의 삶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다수의 작품에서 ‘죽음’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⁹⁾ 특히 9·11과 3·11 사건으로부터 각각 2년 후에 발표된 『PAY DAY!!!』(2003, 新潮社)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明日死ぬかもしれない自分、そしてあなたたち)』(幻冬舎, 2013)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로 인한 일상의 뒤틀림, 그로부터의 치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즉, 죽음과 상실로부터의 ‘치유’와 ‘재생’이라는 테마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죽음을 다룬 이들 작품이야말로 치유적 관점에서 야마다 에이미의 문학적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능 유출을 계기로, “전후시대가 종식되고 ‘3·11 재난 이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만큼 일본 사회의 지각변동과 인식의 전환”¹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작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작품화하면서 ‘진재(震災)·원전(原発)’문학¹¹⁾은 일본에서 하나의 문학범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진재문학과 치유의 테마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데뷔 이래 30년 넘게 줄곧 인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며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온 야마다 에이미의 소설 역시 예외가

学者協会

深谷純一(1993) 「『風葬の教室』(山田詠美)を授業で読む」 『日本文学』 42(4) 日本文学協会

有田和臣(1999) 「山田詠美『放課後の音符(キイノート)』の位相--女子高生ブームと「ニュー不良」の自立」 『稿本近代文学』 通号24 筑波大学日本文学会

斎藤 美奈子(2005) 「評論 学校の文化と『ぼく勉』」 『文芸』 44(3) 河出書房新社

高橋 源一郎(2005) 「評論 ぼくも勉強ができない」 『文芸』 44(3) 河出書房新社

中野 登志美(2012) 「山田詠美「ひよこの眼」における教材性の検討: 「私」の〈語り〉から読みとれる二重の批評性」 『国語科教育』 71卷

谷口 守(2015) 「山田詠美「海の方の子」について -題名と位置設定を考慮した読解-」 『国語論集』 12卷

9) 아카사키 모에코(赤崎萌子)는 “야마다 에이미가 죽음을 다뤄 그려내고 싶었던 것은 역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赤崎萌子(2006) 「山田詠美論 — 人間描写に見る作家の倫理」 『福岡大学日本語日本文学』 16号 福岡大学日本語日本文学会 p.167.]라고 논하고 있다.

10) 고선규(2012)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의 페러다임 전환과 지역사회」 『동북아연구』 17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30.

11) 일본은 지진뿐 아니라 다양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재해를 담은 문학작품은 고대부터 다수 쓰여 왔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원전의 방사능 유출을 수반하여 실질적 피해규모나 일본국민이 느끼는 공포 등에 있어 다른 어떤 재해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비평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진재문학과 원전문학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문학범주와 비평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박유미(2016) 「동일본대지진과 재해문학의 치유와 재생 담론」 『인문학연구』 104号,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140.)

아니다.

이에 본고는 신체적 감각 묘사를 통한 성적 표현에 탁월한 연애소설이라는 기존 연구의 편향된 시선에서 탈피하여 야마다 에이미의 작품 연구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한편 인간이 상처를 극복하고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치유’와 ‘진재문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삶’을 그리기 위한 ‘죽음’

『PAY DAY!!!』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9·11 테러 사건으로 모친을 잃은 16세의 쌍둥이 남매 로빈과 하모니, 그리고 그 주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 9·11 테러는 세계무역센터 내의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모친의 죽음을 초래하는 원인이자 등장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이 사건이 직접적으로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테러 자체에 대한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9·11은 어디까지나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남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그려내기 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주 이 작품은 쌍둥이 남매가 성장해 가는 이야기로 이해되곤 한다. 청소년기 소녀·소년들의 감정을 섬세히 그려내는 데 탁월한 작가의 이력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쌍둥이 중 어머니와 함께 뉴욕에 남아 있던 로빈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9·11을 직접 겪은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뿐 아니라 생사를 넘나들었던 공포의 기억이 주는 마음의 상처를 고스란히 앓고 살아야 한다. 그러한 로빈이 “어려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간 걸까?”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대해 “이 소설 전체를 통해 로빈의 위의 말에 대한 회답이 추구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¹²⁾고 평하였듯이 작가의 시선은 어디까지나 살아남은 남겨진 가족들을 향해있다.

또한 쌍둥이의 삼촌은 걸프전에 참전했다 돌아온 후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인물이나 그 원인이었을 전쟁의 잔혹성이나 참상

12) 旭爪 あかね(2003) 「最近の話題作を読む 九・一一以後の日常を生きのびる『PAY DAY!!!』」山田詠美 著 『民主文学』455号 日本民主主義文学会 p.98.

에 대해서는 역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품은 굳이 미국이라는 배경이나 9·11 테러가 없이 일본의 어느 도시로 옮겨와도 무방한 이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테러나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러한 자세는 2011년 이후 일본의 진재(震災) 문학이 취하는 태도와 닮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발표된 많은 소설들은 재해를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으면서 지진 이후의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야마다 에이미가 동일본대지진 발생 2년 후에 발표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장남의 죽음’은 가족들의 고통과 그 해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돌연한 죽음으로 인해 구체적인 양상은 서로 다르다 해도 가족 모두가 십 수 년 간 고통을 겪는다. 이처럼 『PAY DAY!!!』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겪게 되는 가족의 시점에서 그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소소한 일상에 스며든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에 대해 “진재에 의한 다수의 죽음을 유일무이의 개인의 죽음으로 환치”해 버린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13) 이를 대표하는 소설로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 ばなな)의 『스위트 피어 애프터(スイート・ヒアアフター)』(2011, 幻冬舎)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진재에 대해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나 작가는 작품 후기에서 3·11대지진의 체험이 작품 집필의 계기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소설은 이번 대지진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모두를 향해 쓴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 가볍게 생각되어 한때는 어찌되었던 무거움을 나타내기 위해 피해지에 보란티어 하러 가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여기에 머물면서 이 불안한 나날 속에서 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난 치지마. 이런 가볍고 밝은 분위기의 소설이 뭘 알겠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하고도 생각했습니다. (중략) 나는 나의 소설로 웬지 치유를 받는다. 웬지 괜찮아진다, 그러한 소수의 독자를 향해 조그맣고 건실하게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あとがき」 p.156)

이 작품은 자동차사고로 연인을 잃고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사실 이 작품에 그려진 삶이나 죽음은 지진재해가 있든 없든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진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지에 있는 독자로부터 ‘읽고서 정말 안심이 되었다. 숨을 쉬게 되었다’고 하는 메일이 몇 통이나”(木村 朗子(2013) 『震災後文学論』 靑土社, p.36에서 인용) 왔다고 하는 문고판 후기의 기술을 볼 때, 이 소설은 진재문학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재 따위 없었을 때에도 쓰일 수 있는 테마였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죽음을 진재라는 현실에 중첩시켜 읽은 독자가 있었다고 해도 진짜로 진재의 기억 등이 완전히 흐려졌을 때, 예를 들면 50년 후에 이 소설이 것처럼 읽힐 가능성이 있을지 어떨지. 진재가 일어난지 불과 2년 후라고 하는 작품 속 현재가 지나 버리면 “언제라도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은 슬프다”고 하는 보편성 속에 간단히 회수되어 가는 게 아닐까.¹⁴⁾

기무라 사에코(木村朗子)는 「진재문학론(震災後文学論)」에서 진재를 직접적으로 문학적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아 “문학사라고 하는 거리로 보자면 필시 이들 작품은 작품에 있어서도 진재 전의 작품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진재의 경험이 각인되었다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¹⁵⁾라고 하며 진재 문학으로서 진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재해로 수 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해도 개개인의 죽음은 그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는 결국 소중한 단 한 사람의 죽음일 뿐이다. 『PAY DAY!!!』에서 로빈은 “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생각하기에 앞서 얼마 한 사람의 비극에 이미 마음이 박살이 났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은 9·11 사건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나 자신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무엇보다도 앞선다는 것이다.

“여름에 만났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괜찮아? 견딜 수 있겠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뉴욕에서는 눈앞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만으로도 벅찼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옆에 있어줄게.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로빈, 너를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뻐. 뉴스를 듣고 내가 무사한지 어떤지 체정신이 아니었어. 그렇게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오로지 네 걱정만 하고 있었어.”

(중략)

발버둥치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세상이 어찌 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내 손만을 잡고 이끌어주며 나를 건게 해주는 사람이다. 적어도

14) 木村 朗子(2013) 『震災後文学論』 青土社, p.36.

15) 상동

내가 살아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135)¹⁶⁾

9·11 이후 뉴욕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로빈에게 남자친구는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자신은 오로지 로빈만을 걱정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로빈 역시 상처 입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재해로 아무리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해도 개인의 죽음이나 상처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단 한 사람의 죽음과 상처일 뿐이며, 이로 인한 슬픔이 그 어떤 수많은 희생자들에 의한 것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에서 오빠를 잃은 마스미(真澄)의 아픔 역시 이를 잘 말해준다.

그래 숫자의 문제인 거야.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마음 쓰지 않아. 자신과 관계없는 죽음의 가치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거야. (중략)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몇 만 명의 죽음보다도 오빠 단 한사람의 죽음이 나에게 훨씬 더 슬픈 일이라고. (21)

텔레비전 속에서 아무리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다 해도 몸도 마음도 서로 부대껴 가며 살아온 소중한 사람의 죽음만큼 슬플 수는 없다. 그럴 것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걸.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비웃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지. 인류에 따위가 거짓이듯 인류의 죽음을 걱정하는 것도 그저 위선에 지나지 않아. 절실한 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218)

재해에 의한 죽음이든 사고에 의한 죽음이든 주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상실에는 차이가 없으며, 그렇기에 재해나 테러뿐 아니라 돌연한 사고로 죽게 될지 모르는 무수한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그 죽음으로 인해 상처 받을 사람들의 삶의 소중함 역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진재 문학의 많은 작품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를 테마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회복의 가능성을 그린 야마다 에이미의 작품들 역시 넓은 의미의

16) 작품의 원문 인용은 < 『PAY DAY!!!』 (2003, 新潮社) > < 『明日死ぬかもしれない自分、そしてあなたたち』 (2013, 幻冬舎) > 를 텍스트로 사용하였으며 인용문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 () 안의 숫자는 텍스트의 쪽수를 나타냄

진재 문학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이라는 제목 속의 ‘나’와 ‘당신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아픔이 어떤 특정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위기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의 치유와 재생의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상처와 상실이 먼 ‘타인’의 문제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이야기라는 공감대와 보편성을 형성해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두 작품에서 제시하는 치유의 양상은 특정한 시기나 사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진정한 치유 문학으로서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하겠다. 특히 야마다 에이미가 작품에서 ‘죽음’을 다루는 것은 그로 인해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죽음’은 ‘상실’의 궁극적인 형태로 작용하며 이 ‘죽음’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된 것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회복하는가의 테마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PAY DAY!!!』는 모든 장이 오늘이 ‘월급날 (pay day)’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마무리된다. “적어도 월급날만큼은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pay day’는 아무리 슬프고 힘들다 해도 모두가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는 날, 즉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이 회구하는 치유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에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종교적 갈등, 사회적 혼란 등 실로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살아가는 힘이 요구되는데, 두 소설과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아가는 치유의 스토리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고민한 필연적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가족, 연인, 그리고 개인

이 장에서는 두 작품에 그려지고 있는 가정의 형태와 특징, 각 구성원들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러한 인물구성이 치유 문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PAY DAY!!!』의 주인공인 하모니와 로빈은 16세의 쌍둥이 남매로, 교사인 아프리카계 흑인 아버지와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이탈리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쌍둥이의 가정이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깨어진 상태라는 점과 흑백 혼혈 가정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원래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나 부모가 이혼하면서 여동생 로빈은 모친과 함께 뉴욕에 남게 되고, 오빠 하모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흑인적 정서에서 찾고자 했기에 “남부에는 내가 찾고자 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며 부친과 함께 고향인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이주하게 된다.

그런데 부모 중 한 사람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다른 한 쪽 부모와의 결별과 더불어 자신이 살아온 환경을 떠나 낮은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남매에게 적지 않은 상실감과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들 남매에게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주류에서 배제되는 차별과 아픔이 있다.

특히 하모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흑인과 동일시하면서 백인인 모친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되는데, 이로 인해 모친의 사후 그의 죄책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어려서는 모친에게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열심히 피아노를 쳤던 하모니는 점차 흑인음악에 빠져 모친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다. 그렇기에 모친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죄책감도 커져 모친에 대한 사랑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만의 아픔과 상실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부친과 하모니와는 달리 뉴욕에 남아있던 로빈은 9·11 테러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되며, 동일한 관점에서 삼촌 윌리엄 역시 걸프전에 참전해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에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게 된다.

“걸프전 이야기 해줘요.”

“별로, 그냥 전쟁이었을 뿐이야.”

통명스러운 대답에 로빈은 실망했다. 윌리엄 삼촌의 알코올 중독은 걸프전 경험에 연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드라마틱하게 비춰진다.

“베트남 전쟁처럼 진흙탕을 기어다닌 것도 아니고 적에게 살해당할 뻔한 적도 없어. 나는 바레인 주둔지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을 뿐이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였어. 아마도 몇 천 명은. 하지만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알 수 없어.”(66)

위의 인용은 로빈이 9·11을 겪기 전에 윌리엄삼촌과 나눈 대화이다. 여기에 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로빈은 드라마틱한 이야기라도 되 듯이 전쟁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9·11을 경험한 후에 로빈은 더 이상 삼촌에게 전쟁에 묻거나 하지 않는데, 로빈은 이제 자신 역시 전쟁의 경험자, 당사자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과처럼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더욱더 냉정해져 가는 자신을 느꼈다. 나와 윌리엄 삼촌은 죽음에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적어도 아빠나 하모니 보다는 경험을 쌓았다. (중략) 어느 사이엔가 훈련이 되어버린 것 같다. 너무나 슬프게도. (179)

위에서 로빈은 할머니가 쓰러지자 당황하여 바로 옆에 전화기가 있음에도 찾지 못하는 하모니와 ‘911’이라는 응급전화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전화를 걸지 못하는 아버지의 당황하여 허둥대는 모습을 한심하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부러워한다. 두 사람과는 달리 어느 때처럼 뉴스를 보고 있는 침착한 윌리엄 삼촌을 비교하면서 9·11을 겪은 자신 역시 삼촌처럼 어느 샌가 죽음에 익숙해져 버렸다고 생각한다.

하모니와 부친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를 간접 경험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두 사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구체적인 양상은 서로 다르다 해도 직접 경험한 당사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결국 모두 각각 자신의 상황과 위치에서 나름의 상실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은 사별과 이혼을 겪은 후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남 스미오(澄生)와 장녀 마스미는 부인의 자녀이며 차남 소타(創太)는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이다. 그리

고 이들 부부 사이에서 막내 딸 지에(千絵)가 태어나 이들은 한 가족을 이룬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멋진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하나 장남의 죽음으로 인해 유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가족 모두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데서 오는 공통된 아픔 외에도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각자 자신만의 상처를 안게 된다.

매우 소중한 존재를 앞세운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 스미오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은 모두 각자 상실감을 느꼈을 테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종류는 분명 다를 것이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었을 때 한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깃들어 있었는가에 의해 다를 것이다. (193)

그런데 이들은 각자의 슬픔과 상처는 감춘 채 이전의 행복했던 가정을 재생시키려 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가족의 일원임과 동시에 거기에 행복을 고정시켜 주었던 중요한 나사였다”는 표현처럼 무리하게 다시 세워진 가정은 엄마의 알콜 중독으로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결국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않는 한 가정의 재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소설은 「나(私)」 「나(おれ)」 「나(あたし)」로 이루어진 장마다 각각 마스미, 소타, 지에가 화자가 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도록 한다. 마스미는 장녀로서 학업마저 포기한 채 새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모친 대신 집안 살림까지 맡아야 했다. 소타는 오로지 새엄마를 웃게 만들기 위해 광대와 같은 행동도 마다하지 않으나 자신이 결코 스미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상처받는다. 막내인 지에는 기억에도 없는 큰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견뎌야 하는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독특한 구성은 『PAY DAY!!!』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 「로빈」 「하모니」 「로빈」 「하모니」라는 식으로 시점 인물을 달리하며 진행되던 이야기가 「로빈, 그리고 하모니」로 끝을 맺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 역시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두(皆)」에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준다.

두 작품에 보이는 이 같은 구성은, 가족이라 해도 그 구성원은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아픔과 상실의 양상이 다르고 따라서 치유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는 두 작품을 ‘치

유로서의 가족'을 그리고 있다고 간단히 해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으로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한 가족 역시 상처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PAY DAY!!!』의 등장인물들은 모친의 사고를 알게 된 슬픔의 순간에, 모두 가족이 아닌 '연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하모니의 여자 친구야.”

로빈이 대신 얘기했다. 아버지는 하모니의 양 어깨를 붙잡고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모니는 아버지의 말에 코를 훌쩍이며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 사람은 9월 11일의 그 사건을 알았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어?”

하모니는 재차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손이었어.”

로빈이 끌어안은 무릎에 얼굴을 올린 채 아버지와 하모니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모두 각자 가족 이외에 자신들의 그 날을 지탱해줄 사람이 있는 거군.”

“아빠도 있어?”

로빈이 침대에서 몸을 내밀며 물었다. 하모니는 이제야 얼굴을 들었다. 뭔가 당연한 일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있지. 있어 줘서 지금도 고마운 사람이 있어. 그저 위로받기를 그 때 나는 바라고 있었어.”

“그 사람이 지금의 여자친구?”

“그래.....”

(244-245)

야마다 에이미는 데뷔 이래 줄곧 '인간'과 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특히 연인과의 관계는 그 중심에 놓여있는데 대부분의 소설에서 연애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에서도 개인의 치유 과정에서 연인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녀 마스미의 사랑은,

가족을 위해 그러했듯이 자기희생적 모습을 띠고 있다. 병든 아내를 간호하며 살아가는 남자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데 만족하고, 아내의 사후에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쉽게 남자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둘째 소타는 중년에 접어든 연상의 여성에게서 연민과 함께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느끼며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이처럼 두 사람의 연애는 가족관계를 통해 갖게 된 상실이나 아픔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자기희생만을 반복하거나 모성애에 대해 대리만족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가족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상실과 아픔이 연인과의 관계에 투영되면서 이들은 점차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가족과 달리 연인은 독립된 개인과 개인의 대등한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이다. 연인을 통해 이들은 점차 가족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상처와 상실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작품에 그려지고 있는 치유의 과정에서 연인과의 관계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도 야마다 에이미의 문학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작가가 그리는 인간관계의 핵심에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자립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4. 나가며

본고는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작가의 한 사람인 야마다 에이미의 소설을 신체적 감각 묘사를 통한 성적 표현에 탁월한 연애소설이라는 기존의 편향된 시선에서 탈피, ‘치유’라는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9·11과 3·11로부터 각각 2년 후에 발표된 『PAY DAY!!!』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당신들』을 텍스트로 하여, 이야기의 주요 요소인 ‘죽음’ ‘상실’ ‘가족’ 등에 초점을 맞춰 치유 문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들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일상의 뒤틀림과 상처,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어 치유 문학으로서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작품에 그려지고 있는 ‘죽음’의 양상에 주목하였다. ‘죽음’은 ‘상실’의 궁극적인 형태로 이 ‘죽음’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된 것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

이 회복하는가를 그리고 있다. 즉, 야마다 에이미가 작품에서 ‘죽음’을 다루는 것은 그로 인해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자 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작가의 두 작품은, 모두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겪게 되는 가족의 시점에서 그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소소한 일상에 스며든 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며 그로부터의 치유와 재생을 그리고 있다. 진재 문학의 많은 작품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를 테마로 하고 있으며 이에 재해를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으면서 지진 이후의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시기나 사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해체와 회복의 가능성을 그린 야마다 에이미의 작품들 역시 넓은 의미의 진재 문학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가정의 형태와 특징, 각 구성원들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러한 인물구성이 치유 문학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각 장마다 시점 인물을 달리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라 해도 그 구성원은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아픔과 상실의 양상이 다르며 따라서 치유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장치라 하겠다.

특히 치유의 과정에서 연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족과 달리 연인은 독립된 개인과 개인의 대등한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이기에 개인의 자립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야마다 에이미의 문학적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로 다양한 상처와 상실을 안고 살아간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언제 나를 또는 그 누군가를 덮칠지도 모르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불안한 상황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 그렇기에 정신적 ‘치유’를 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문학작품에서 찾고자 하는 것 역시 필연적 귀결이라 하겠다. 데뷔 이래 줄곧 인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온 야마다 에이미의 소설이야말로 이러한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선규(2012)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사회」 『동북아연구』 17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30.
- 박유미(2016) 「동일본대지진과 재해문학의 치유와 재생 담론」 『인문학연구』 10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140.
- 赤崎萌子(2006) 「山田詠美論--人間描写に見る作家の倫理」 『福岡大学日本語日本文学』 16号福岡大学日本語日本文学会編, p.167.
- 旭爪 あかね(2003) 「最近の話題作を読む 九・一一以後の日常を生きのびる『PAY DAY!!!』山田詠美著」 『民主文学』 455号 日本民主主義文学会, p.99.
- 奥野健男(1989) 「選評」 『群像』 講談社, p.276.
- 有田和臣(2005) 「研究動向 山田詠美」 『昭和文学研究』 51卷 昭和文学会編集委員会, p.95
- 川村 湊(1987) 「解説」 『ジェシーの背骨』 河出文庫, p.184.
- 木村 朗子(2013) 『震災後文学論』 青土社, p.36.
- 斎藤 美奈子(2005) 「評論 学校の文化と『ぼく勉』」 『文芸』 44(3) 河出書房新社, p.104.
- 山田詠美・吉本ババナ(1992) 「恋愛小説のゆくえ」 『文芸』 31(5) 河出書房新, p.162.
- よしもと ばなな(2011) 「あとがき」 『スウィート・ヒアアフター』 幻冬舎, p.156.

논문 투고 일자 : 2018.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 要 旨 >

山田詠美の小説への新しいアプローチ
- 癒しの観点で -

朴裕美

本稿の目的は、山田詠美の小説に書かれた癒し・再生の言説を分析し、震災文学としての位置づけをおこなうことにある。『PAY DAY!!!』と『明日死ぬかもしれない自分、そしてあなたたち』、これらの小説は9・11と3・11事件から各々2年後に発表されているが、地震などの災害が直接に描かれていない。大切な人を失って崩壊している家族のその再生の物語といえる。大震災で生と死の問題は、一層重要なテーマとして浮上することになった。そのゆえ文学は大きな政治や災害ではなく、一人一人の死に寄り添う物語を紡ごうとし、特に生き残った者のための癒しとして意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

山田詠美は現代の日本を体表する女性作家である一方でスキャンダラスな話題性にまみれ、その評価は揺れがちである。再生のメッセージを含んでいる小説、「癒し系文学」としての分析と糾明の試みを通じて人生の生き方を探求しつづけてきた山田詠美の文学の価値を再構築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

A New Approach To Yamada Eimi's Novels
- Focusing On Healing Perspective -

Park, You-M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courses of healing and revitalization in the novels of Yamada Eimi (known in the West as "Amy Yamada") and position her work as earthquake disaster literature. The novels "Pay Day!" and "Me Who Might Die Tomorrow, And You Guys", were published two years after the 9/11 and 3/11 incidents, but do not draw directly on these or other disasters. Instead, they are both stories about the regeneration of families after collapsing from the loss of a loved one, in which problems of life and death caused by the Great Earthquake emerge as the most important themes. Therefore, her work does not focus on major political events or disasters, but instead tries to share individual stories closely tied to traumatic events to provide a kind of healing for those who have survived such events.

Although Yamada Eimi is a female author writing expressing contemporary Japan, her evaluation that is covered with scandalous topics tends to shake. As her novels continuously explore the Japanese way of life and contain messages of revival, in this paper, I will argue that it is possible to reclarify the value of Yamada Eimi's work by repositioning it as "healing literature."